

DDC 한국관련 표준재전개표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andard Relocations and Expansions of DDC for Korean Libraries

이 은 철(Eun-Chul Lee)**
곽 철 완(Chul-Wan Kwak)***
백 향 기(Hang-Gi Paik)****
이 명 희(Myeong-Hee Lee)*****

초 록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간의 자원의 공유를 위한 DDC 표준재전개표 개발을 위하여 DDC를 사용하는 대학 도서관들 중 재전개표 사용 여부에 대한 조사와 재전개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표준 재전개표의 주요 내용은 Table 2, Table 5, Table 6과, 000 총류, 100 철학 중 동양철학, 200 종교 중 불교와 동양발생 제종교, 300 사회과학 중 행정학, 400 언어학, 800 문학, 900 지리 및 역사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DDC에 임의규정이 없는 경우는 보편성의 원리에 따라 이를 적용하였고 그 외의 대부분의 재전개는 임의규정에 충실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대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지식정보의 공유에 기여할 뿐 아니라 KDC를 개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relocations and expansions of DDC for the Korean university libraries using DDC to develop the standard relocations and expansions suitable for Korean situations. Contents of the standard relocations and expansions of DDC suggested by this study are as followed : Table2, Table5 and Table 6. Also included are the Generalities class, Oriental philosophies from the Philosophy class, Buddhism and the oriental-origin religions from the Religion class, Public administration for the Social sciences class, the Language class, the Literature class, and the General geography and history class.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this study is that the standard relocations and expansions of DDC is followed by the options in DDC although it is followed by the basic systems in case that the options are not allowed.

키워드: DDC, 재전개표, 표준재전개표, 임의규정, relocations, expansions

-
- * 이 연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제출한 연구보고 KR 2002-5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
**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eclee@slisnet.skku.ac.kr)
*** 강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ckwak@kns.kangnam.ac.kr)
****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 사회과학팀장(hkpaik@sookmyung.ac.kr)
*****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mehelee@smu.ac.kr)
논문접수일자 2003년 6월 4일
게재확정일자 2003년 6월 10일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에는 도서관이 소장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지식·정보자원이 급증하고 있어서 단일 도서관만으로는 이용자들의 요구에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서관을 둘러싼 제반 기술적·사회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발전은 도서관 자원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와 같은 효과적인 전달기술이 발달하여 개별 도서관의 자원을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에 도서관간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면 개별 도서관들로서도 이용자들에게 폭 넓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 도서관의 역할 증대와 경제적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도서관 협력강화의 기본적인 조건은 개별 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특정 자료에 대해서 개별 도서관이 소장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 동일 자료 여부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소장 장서의 정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서 분류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동·서양서 혹은 고서의 구별없이 단일 분류체계를 사용하는 경우와 도서에 따라 다른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는 복합 분류체계를 사용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모든 도서에 DDC(듀이십진분류법) 혹은 KDC(한국십진분류법)를 분류체계로 채택하는 단일 분류체계의 도서관과, 동양서, 서양서, 혹은 고서에 따라 각기 다른 분류체계, 즉 동양서는 KDC, 서양서는 DDC 혹은 LCC(미의회도서관분류법), 그리고 고서는 四部法, KDC 등

의 복합 분류체계를 적용하는 도서관 등 각 도서관의 분류정책에 따라서 다양한 분류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 채택하고 있는 DDC는 구미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어 한국 및 동양에 관한 자료의 분류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국을 비롯한 동양관계에 대한 분류체계는 각 대학도서관마다 독자적으로 수정 또는 변형한 전개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개별 대학도서관이 서로 다른 분류체계를 사용함으로써 자원 공유를 위한 교육학술정보 종합목록의 작성, 정보유통 및 공동활용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별 대학도서관에서 각각 채택하고 있는 DDC의 한국·중국·일본 관련 항목의 분류체계를 조사 분석 표준화하여 대학도서관간의 상호협력 사업을 강화하여 지식정보자원 공동활용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자원 공유를 위한 분류체계 표준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개별 대학도서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DDC 한국관련 표준전개표를 개발·제시함으로써 국내 대학도서관협력체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연구방법 및 선행연구

2.1 연구방법

이 연구는 분류체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적 기반과 역사, 구체적인 분류체계 등은 주로 문헌조사를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다. 선행연구를 망라적으로 검토하여 한국 및 동양관계 전개표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점이나 기존의 방안 등을

조사하였다. 분류체계에 관한 조사 및 분석은 일차적으로 직접 분류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얻도록 시도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낼 수 없는 요인들을 조사·분석하기 위해서는 관계 전문가 또는 담당사서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연구에 반영토록 하였다.

현재 DDC를 사용하고 있는 대학 도서관 중에서 대표적인 국립대학 도서관 주요 사립대학 도서관 중에서 실제 분류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도서관을 선정하여 현장 조사를 통해, 한국 및 동양관계 전개표의 문제점 도출 또는 제안된 전개표의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현장조사가 어려운 여타 지역의 사례조사를 위해서는 e-mail을 활용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의 조언이나 경험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간보고서 발표 후 서울시내 소재 대학도서관에서 DDC를 가지고 분류업무를 담당하는 사서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간담회에서 실제로 DDC의 동양관계 전개표가 미비하거나 표준화되지 않은 실정으로 동양관계 자료 분류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의견을 경청하였고 이번 시안 마련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다.

2.2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본 연구는 DDC를 단일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대학도서관 중에서, 한국 및 동양관계 자료에 대한 분류를 어떠한 방법으로 전개하고 있는가 하는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각 도서관이 사용하고 있는 전개표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각

도서관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전개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특히, DDC에서 한국 및 동양관계 분야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표준 전개표를 작성하여 전체 항목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표준 전개표가 각 대학도서관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KDC와 연계하여 KDC에서 아직까지 전개가 되지 않은 미비한 세목들은 DDC 표준전개표에서 개발한 항목들을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2.3 선행연구

DDC(Dewey Decimal Classification)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130여 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도서관 분류표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학 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수의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분류표이다. DDC의 이와 같은 국제적 이용 때문에 DDC의 편찬자들도 미국이나 서양 이외의 지역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DDC의 국제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오동근 2001). 예를 들면, 미국 이외 지역의 분류전문가를 분류표 개정작업에 참여시키거나, 자국의 실정에 맞게 전개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 등의 도입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DC의 미국 내지 서구중심의 전개를 극복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DDC를 사용하는 국내의 도서관에서도 각 도서관마다 일부 항목들을 변경하여 고쳐 사용하거나 재전개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는 1955년 김중환의 간략7판 약편본, 국회도서관

관의 동양관계세분전개표(1959), 이재철의 전개 및 고쳐쓰기(1967), 동국대학교 도서관의 동양관계항목전개표(1984) 등이 있고, 최근에 와서는 1997년 DDC 제21판을 재전개한 김영경의 편역본과 1998년 경북대학교 도서관 수정본 등이 있다.

김중환의 역편본과 국회도서관, 동국대학교 도서관의 재전개표는 원래 모두 DDC 제16판이나 간략판을 기초로 하여 한국에서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부분들을 수정한 것인데 김중환 역편본은 박봉석의 조선십진분류법의 방식, 국회도서관의 재전개표는 일본십진분류법의 방식을 기초로 하여 재전개한 것이다. 이재철의 전개 및 고쳐쓰기는 DDC 제 17판을 기초로 한 것으로, DDC체계를 살려 조기성을 가질 수 있는 항목의 전개는 DDC 원표의 체계를 따르고자 했으며, KDC 중 세목전개에서 합리적으로 잘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 이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 나라 도서관에서 DDC 고쳐쓰기 방식을 실제로 채택한 예로는 연세대학교 도서관의 전개 및 고쳐쓰기, 국회도서관의 전개 및 고쳐쓰기, 동국대학교의 전개 및 고쳐쓰기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연세대학교 도서관과 국회도서관, 동국대학교 도서관의 전개 및 고쳐쓰기는 모두 DDC 제 16판을 기초로 하여 DDC로 분류하기에 부적절한 부분을 수정한 것인데, 이 중 연세대 도서관의 경우에는 박봉석의 KDCP 방식, 국회도서관의 것은 NDC 방식에 기초를 두고 재전개한 것이다. 또한, 동국대학교 도서관 재전개표는 어느 한 특정분류표에만 의존하지 않고, 한국십진분류법과 NDC는 물론 그 밖의 여러 문헌들을 참고하고 주제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DDC의 체계에 가급적 맞추어 이들을 집약하여 재전개하고자 시도한 것이다(오동근, 2002). 경북대학교 도서관의 수정본은 KDC와 국내 몇몇 대학도서관에서 발행한 재전개표들을 참고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DDC 동양관계항목의 재전개에 관한 학위논문으로는 최윤숙(1974)과 이세원(1994)의 논문이 있다. 최윤숙은 국회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도서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전개표를 비교하였으며, 이세원은 국회와 동국대, 연세대 도서관 및 이재철 재전개표 등의 DDC 재전개표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김승환(1986)은 DDC 제19판의 다양한 주제분야의 항목을 대상으로 재전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동양관계항목의 재전개에 관한 연구논문이 다수 이루어졌는데, 오동근과 여지숙(2001)은 DDC 제21판을 대상으로 한국 및 동양관련 항목의 재전개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table2와 table5, table6 등의 보조표를 우선적으로 재전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교류와 서예류의 재전개안을 제시하였으며, 역사, 지리, 언어, 문학, 총류 등의 관련주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재전개하였다. 정연경(2000)은 DDC 21판과 KDC 4판을 비교 분석하여 KDC 4판의 추후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두 분류표의 형태서지적 측면, 배역, 보조표와 개요표, 주기, 주제의 표현, 상관색인, 편집체제, 개정 과정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 비교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국십진분류표의 개선사항을 8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새로운 개정판이 나올 때마다 변동된 사항을 자세히 고시하고, 매뉴얼을 분류표 내에

포함시키고, 새롭게 등장하는 항목이나 용어를 적절히 고려하고 상관색인의 구축, 분류표 개정 작업의 지속적인 공개, 분류담당 사서를 위한 워크숍과 훈련 프로그램 개발, 전자버전 구축을 위한 준비작업을 제안하였다. DDC의 동양전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KDC 제4판의 철학류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한경신(1994)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 연구에서는 항목 명칭의 합리적 변경과 서양 인명 표기상의 오류 개선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철학류의 전 분야가 균형있게 전개되지 못한 점, 항목간의 수평·수직적 관계가 유기적으로 설정되지 못한 점, 개념의 오용과 사상적 계보에 대한 이해의 부족 등을 지적하고, 분류위원회 구성에 분류전문가 이외에 주제 전문가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김정현과 문지현(2001)도 농학류의 분류기호를 KDC와 비교하여 수정전개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문헌목록정보 가운데 농학관련 문헌 5,400건을 추출하여 KDC 농학분야 분류표를 적용함으로써 각 문헌들의 분류기호가 대상문헌의 주제를 얼마나 충실하게 나타내는지 분석하였다.

이상의 재전개표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KDC, NDC 등 동양의 분류표들을 참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모든 재전개표에서는 자국우위를 취하면서 한국과 중국, 일본의 동양 3국을 동일한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 세구분에 각국을 재전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전개방법에 있어서는 편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항목별로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분류표라 하더라도 개별 도서관에 따라서 또한 분류실무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다르게 취급되어 다른 자료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동일한 분류표의 재전개 방식을 통일하여 전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겠다.

3. 설문조사 및 분석

3.1 설문지 배포 및 회수

2002년 7월, 전국 4년제 대학교 도서관 중 한국도서관협회에서 2002년에 조사한 자료를 기초로 DDC를 분류체계로 사용하는 도서관 138개관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그중 77개관이 설문지에 대한 답을 보내왔는데(56%). 이중 2개관은 KDC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분석대상 75개관 중 한국 및 동양 관련 재전개를 하는 도서관은 47개관(63%)이고, 나머지 28개관(37%)은 DDC본표를 재전개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다. 본 논문의 내용은 47개관에서 응답한 내용을 기초로 분석하였다.

3.2 분류표 사용현황

현재 사용중인 DDC 판차사항에 관한 질문에서 설문지에 응답한 도서관의 75%인 35개 도서관에서 DDC 20판과 21판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16판, 18판, 19판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도서관도 17%인 8개관이나 되었다. 또한, 2개판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도서관도 3곳이나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 많은 도서관이 새로운 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설문에 응답한 도서관 중 17%는 새로운 판을 받아들이는데 보수적

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동양서·서양서·고서에 대한 분류체계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도서관 모두가 서양서에 대해서는 DDC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동양서에 대해서는 응답 도서관의 92%인 43개 도서관에서 DDC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2개관은 KDC, 그리고 2개관은 기타로 응답하였다. 한편, 고서에 대해서, DDC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도서관은 64%인 30개관에서 사용하고 있었으며, KDC가 2개관, 사부분류법이 7개관, 나머지 8개관은 응답하지 않았다. 이는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하나의 분류체계를 사용하나, 극소수의 도서관에서는 2개 이상의 분류체계를 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3 보조표 및 본표 재전개(수정변경) 현황 및 분석

(1) 보조표

① 지역구분표(Table 2)

지역에 대한 재전개는 4가지 다른 유형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57%(27곳)는 -5 아시아, -51 한국, -52 중국, -53 일본으로 재전개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그 밖에 17곳(36%)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DDC에서는 임의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응답의 경우에는 지리 및 역사(900)에서 사용하는 지역구분을 다른 분야에 적용을 하여서 굳이 지역구분표를 사용하지 않았으리라 추측된다.

② 인종, 민족, 국적(Table 5)

민족에 대한 재전개는 5개의 유형으로 구분

되었으며, 전체의 72%가 적용하고 있지 않거나 혹은 응답하지 않았다. 재전개는 전체의 17%인 8곳에서 -951 한국인; -952 중국인; -953 일본인을 사용하고 있었다. DDC에 자국우위의 임의규정이 있는데, -1 한국인; -2 영국인, 미국인, -951 중국인, -956 일본인의 순서로 되어 있었다.

③ 언어(Table 6)

언어에 대한 재전개는 7개의 유형으로 나타나며, 전체의 36%인 15개 곳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전체의 31%인 13개 곳에서는 -1 동양어; -11 한국어; -12 중국어; -13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DDC에 자국우위의 임의규정이 있는데, -1 한국어; -2 영어, -951 중국어, -956 일본어의 순서로 되어 있었다.

(2) 본표

① 총류(000)에 대한 재전개

일반백과사전(030)은 6개의 유형이 존재하며, 전체의 51%인 24개 곳에서는 031.1 한국어백과사전; 031.2 중국어백과사전; 031.3 일본어백과사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16개곳(34%)은 무응답 혹은 재전개를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 부분도 굳이 재전개표를 만들지 않고, 지역구분표(Table 2) 혹은, 지리 및 역사(900)에서 사용하는 지역구분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을 수도 있었으며, DDC의 자국우위 임의규정을 따르는 도서관도 3개 기관이 있었다.

일반정기간행물(050)은 9개의 유형이 존재하며, 전체의 40%인 19개 곳에서는 051.1 한국어; 051.2 중국어; 051.3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17개곳(36%)는 무응답 혹은

재전개를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 DDC의 자국우위 임의규정을 따르는 도서관도 3개 곳이 있었다.

일반단체(060)는 6개의 유형이 존재하며, 전체의 40%인 19개 곳에서는 061.1 한국; 061.2 중국; 061.3 일본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21개 기관(45%)은 무응답 혹은 재전개를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 DDC의 자국우위 임의규정을 따르는 도서관도 3곳이 있었다. 무응답 혹은 재전개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지리 및 역사(900)에서 사용된 지역구분을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언론 및 신문(070)은 7개의 유형이 존재하며, 전체의 43%인 20개 곳에서는 071.1 한국; 071.2 중국; 071.3 일본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17개 기관(36%)은 무응답 혹은 재전개를 적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DDC의 자국우위 임의규정을 따르는 도서관도 3개 기관이 있었다.

일반전집(080)은 6개의 유형이 존재하며, 전체의 40%인 19개 곳에서는 081.1 한국어; 081.2 중국어; 081.3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22개 기관(48%)은 무응답 혹은 재전개를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 DDC의 자국우위 임의규정을 따르는 도서관은 2개 기관이 있었다.

② 철학(100)에 대한 재전개

극동아시아(181.1)에 임의규정인 자국우위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임의규정에 따르면, 181.1 한국철학; 181.9 극동아시아(중국, 일본)철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7개의 유형이 나타나며, 전체의 55%인 26개 곳에서 181.1 한국철학; 181.2 중국철학; 181.3 일본철학으

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21%인 10개 관에서는 181.11 한국철학; 181.12 중국철학; 181.13 일본철학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위의 두 방법의 차이점은 '181.1 Far East and South Asia'를 동양철학으로 배정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철학으로 배정하고 '181.2 Egypt'와 '181.3 Palestine Israel'을 다른 곳으로 재배정하는 차이로서 만약에 181.11을 한국철학으로 배정하면, 다른 항목의 이동이 없이도 해결할 수 있지만, 분류기호가 길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③ 종교(200)에 대한 재전개

한국발생 종교에 대한 재전개는 전체 10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DDC의 임의규정인 자국우위는 하나의 특정종교에 한정되어 있어서, 한국발생 종교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지만, KDC의 경우와 같이 불교를 임의규정에 따라 전개할 수 있다. 전체의 28%인 13개 곳에서 299.51 한국종교 아래 299.511 천도교 등으로 세분하였다. 전체의 51%인 24개 곳에서는 응답을 하지 않거나 재전개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이 항목에서 특성은 299.51을 '한국발생 종교'로 정하고, 세부적인 구분 순서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행정학(350)에 대한 재전개

행정학에 대한 재전개는 10가지의 유형이 나타나는데, 임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서 전체의 68%인 28개 곳에서 적용을 하지 않거나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나타나는 것은 DDC 본표를 적용하면서 한국 행정부 따로 구분하려는데 발생하는 문제

라 생각되며, 응답하지 않거나 적용하고 있지 않는 도서관에서는 분야별에 지역구분을 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⑤ 언어(400)에 대한 재전개

언어는 자국우위의 임의규정이 적용되는 항목으로 임의규정에 의하면, 410 한국어; 495.1 중국어; 495.6 일본어가 되어야 하는데, 7가지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의 70%인 33개 곳에서 411 한국어; 412 중국어; 413 일본어순으로 재전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DDC 기준의 임의전개를 하는 도서관도 6곳(13%)이 있었으며, 재전개를 하지 않고, DDC 본표를 그대로 따르는 도서관도 2개 곳이 있었다.

⑥ 문학(800)에 대한 재전개

9가지 유형을 보이고 있으며, 문학은 언어와 마찬가지로 자국우위의 임의규정이 적용되는 항목으로 임의규정에 의하면, 810 한국문학; 895.1 중국문학; 895.6 일본문학이 되어야 한다. 전체의 68%인 32개 곳에서 811 한국문학; 812 중국문학; 813 일본문학 순으로 재전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임의규정을 적용한 도서관은 6개이며 (단 서울대학교는 미국문학: A820, 캐나다문학: C820을 사용) 응답하지 않은 도서관은 1개 곳에 불과하였다.

⑦ 지리·역사(900)에 대한 재전개

지리 및 역사는 자국우위의 임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으로 4가지 유형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의 83%인 39개 곳에서 사용하는 재전개는 951 한국; 952 중국; 953 일본이다. 이는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지역구분은 KDC의 방법

을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적용하고 있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은 도서관은 3곳이었다.

4. DDC 한국 및 동양관련 표준전개표 (권고안)

4.1 표준전개표 구축을 위한 기본 원칙 및 방향

DDC의 동양관계 자료를 재전개하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것은 DDC에서 보여주고 있는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고 지역적으로 중요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매커니즘으로 제시하고 있는 임의규정을 활용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DDC에 제시되어 있는 임의규정은 국내 현실에서는 제대로 반영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차선의 방책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다수의 대학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는 DDC의 기본 체계를 유지하면서 국내의 상황을 반영하여 수용하는 것인데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재전개안의 주요 전개 원칙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DDC의 임의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자국우위를 기준으로 재전개하되,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양관련 항목은 가능한 한곳에 모이게 한다, 2) DDC 전개가 지나치게 간략한 한국 및 동양관련 항목의 추가적인 세구분은 KDC의 전개를 채용한다, 3) Table 활용을 강화함. 한국 및 동양에 관련된 Table 2, Table 5, Table 6에 대해 분류표 전체에 적용될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고려하여 자국우위를 부여하여 전개한다, 4) 보조표는 본표에 모든 부분에 합성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논리적으로 합성 가능해야 하며, DDC의 분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한다, 5) 총류를 비롯한 철학, 종교, 사회과학, 언어, 문학, 역사·지리분야에 한국 및 동양관련 항목에 대해서 표준 전개표를 작성한다, 6) 기존의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개표를 기준으로 실제 활용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 확장 가능하며, DDC를 사용하는 도서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적인 전개표를 작성한다.

4.2 표준전개표 내용

(1) Table 2 지역구분표 Areas, Periods, Persons

한국(51), 중국(52), 일본(53)을 인접시키고, 지역구분을 세분화하여, 한국의 경우 시·군까지 분류기호를 부여한다. 한국의 지역구분은 KDC에 기초하여 한반도 북동쪽을 시작으로 하여 남서쪽(제주도)으로 구분하고, 북한지역의 지명은 현재 사용 중에 명칭을 사용하여 현실성을 증대시킨다. 지역을 크게 8개 지방(서울특별시 포함)을 나누고, 그 아래로 도(道) 구분을 한 후, 각 도를 지역으로 나눈 후(예, 함경북도 북부지역, 함경북도 남부지역) 지역 아래에서 시·군으로 세분한다. 이와 같은 구분은 오늘날 지방자치로 인한 지역의 관광, 문화 등 지역특성을 관한 자료가 증가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에 대한 지역구분은 KDC구분과는 별개로 DDC를 근거로 하여 세분하였다.

<예>

- 51 한국 Korea
- 511 관북지방(함경북도, 함경남도, 량강도)

- 511.1 함경북도
- 511.2 함경북도 북부지역
- 511.3 함경북도 남부지역
- 511.4 량강도
- 511.5 량강도 동부지역
- 511.6 량강도 서부지역

(2) Table 5 인종, 민족, 국적 Racial, Ethnic, National Groups

DDC의 임의규정을 적용하되, -1을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인으로 하고, 한국인(11), 중국인(12), 일본인(13) 순서로 분류한다. 다른 아시아 인종은 DDC의 순서를 따른다.

<예>

- 1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인 East and Southeast Asian Peoples
- 11 한국인 Korean
- 12 중국인 Chinese
- 13 일본인 Japanese
- 14 미얀마인 Burmese
- 15 동남아시아인 Southeast Asian peoples; Mundas
- 2 미국 및 영국인 North Americans, British, English, Anglo-Saxons

(3) Table 6 언어 Languages

DDC의 임의규정을 적용하되 Table 5 인종, 민족, 국적과 마찬가지로 한국어(11), 중국어(12), 일본어(13) 순서에 따르며, 다른 동아시아 언어는 DDC의 순서에 따른다.

<예>

- 1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언어
- 11 한국어 Korean

- 12 중국어 Chinese
- 13 일본어 Japanese
- 14 미얀마어 Burmese
- 15 동남아시아어 Languages of Southeast Asia: Munda languages
- 2 영어 English
- 91 인도-유럽어 Indo-European languages

4.3 본표 내용

(1) 000 총류 Generalities

① 030 일반백과사전 General encyclopedic works

DDC의 임의규정을 적용하되, 031을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어 일반백과사전으로 하고, Table 6의 언어 구분에 따라 전개한다.

<예>

031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어 일반백과사전

- .1 한국어 General encyclopedic works in Korean
- .2 중국어 General encyclopedic works in Chinese
- .3 일본어 General encyclopedic works in Japanese

032 영어 일반백과사전(미국판)

② 050 일반연속간행물 General serial publications

DDC의 임의규정을 적용하되, 051을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어 일반연속간행물로 하고, Table 6의 언어 구분에 따라 전개한다.

<예>

051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어 일반연속간행물
General serial publications in East and Southeast Asian languages.

- .1 한국어 General serial publications in Korean
- .2 중국어 General serial publications in Chinese
- .3 일본어 General serial publications in Japanese

③ 060 일반기관 및 박물관학 General organizations and museology

DDC의 임의규정을 적용하되, 061을 아시아 일반기관으로 하고, Table 2의 지역 구분에 따라 전개한다.

<예>

061 아시아 일반기관 General organizations in Asia

- .1 한국 General organizations in Korea
- .2 중국 General organizations in China
- .3 일본 General organizations in Japan

④ 070 저널리즘, 신문 잡지 출판 Documentary media, educational media, news media: journalism: publishing

DDC의 임의규정을 적용하되, 071을 아시아 저널리즘, 신문으로 하고, Table 2의 지역 구분에 따라 전개한다.

〈예〉

071 아시아 저널리즘, 신문 Journalism and newspapers in Asia

- .1 한국 Journalism and newspapers in Korea
- .2 중국 Journalism and newspapers in China
- .3 일본 Journalism and newspapers in Japan

⑤ 080 일반전집 General collections

DDC의 임의규정을 적용하되, 081을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어 일반전집으로 하고, Table 6의 언어 구분에 따라 전개한다.

〈예〉

081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어 일반전집 General collections in East and Southeast Asian languages.

- .1 한국어 General collections in Korean
- .2 중국어 General collections in Chinese
- .3 일본어 General collections in Japanese

(2) 100 철학 및 심리학 Philosophy & psychology

철학에서 재전개가 필요한 대표적인 예는 181 Oriental philosophy이다. 181.1 아래에는 특정 국가의 철학에 자국우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임의규정이 있다. 즉 특정 국가의 철학을 181.1에 분류하고, 181.1에 분류된 극동아시아 및 남아시아 철학을 181.9에 재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KERIS의 운영지침에서는 가능한 한 DDC의 임의규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동양관계를 재전개하기를 바라지만 동양관계의 항목이 매우 부족하고 한국자료의 분류기호는 다른 국가에 비해 기본기호가 긴 상태에 또 다시 세분하여 전개하면 지나치게 분류기호가 길어져 분류기호의 기본 조건인 간결성, 단순성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한국과 관련이 깊은 중국과 일본의 자료가 분리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임의규정을 사용하여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철학에 대해 우위를 부여할 경우 세 나라의 자리수가 모두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 DDC를 사용하고 있는 많은 도서관에서도 동양관계 전개에서는 DDC의 임의규정을 따르기보다 한국관계와 동양관계 주제에 우위를 두어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DDC의 기준을 재전개하면 181.1 한국철학, 181.9 극동아시아(중국, 일본) 철학으로 되어 자국의 우위는 유지할 수 있으나 한·중·일본의 자료가 분리, 배열되는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먼저 한국철학을 181.1, 중국철학을 181.2, 일본철학을 181.3에 전개하여 한국, 중국, 일본의 동양 3국의 철학을 나란히 배열한다. 재전개안에서는 “한국-중국-일본”의 배열순서를 유지하였으며, 기타 아시아 제국의 철학은 우리 입장에서 보았을 때 중요도에 따라 181.4 이하에 배열하였다. 다른 국가들은 본표의 배열기준을 따랐다. DDC 본표의 181.2 이집트 철학은 181.7(공란)으로 재전개하고, 181.3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철학은 181.8의 시리아, 레바논과 통합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의 철학은 각각 시대별로 세분하여 전개하였으며, 이들의 더욱 자세한 세분전개는 KDC의 151-153에 전개된

해당국 철학의 전개를 많이 반영하였다.

한국·중국·일본 3국의 자료를 배열하기 전에 이들 각국에만 독특하지 않은 일반적인 경서류와 유학의 제논제는 이들 국가와 분리하여 앞에 전개하였는데 이는 주로 연세대학교 분류법과 KDC 분류표를 많이 참고하였다. 경서류는 180.02에 두었으며, 주역(180.021), 사서(180.022), 학용(180.023), 대학(180.024), 중용(180.025), 논맹(180.026), 논어(180.027), 맹자(180.028), 기타경서(180.029)의 순서로 배열하였다. 또한, 유학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제 논제를 180.03에 두었으며, 그 아래에 본체론(180.031), 인성론(180.032), 수양론(180.033), 지식론(180.034)의 순서로 배열하였다.

<예>

- 180 고대, 중세, 동양철학(Ancient, medieval, Oriental philosophy)
- 181 동양철학(Oriental philosophy)
 - .1 한국철학(Korean philosophy)
 - .2 중국철학(Chinese philosophy)
 - .3 일본철학(Japanese philosophy)

(3) 200 종교 Religion

① 294.3 불교

DDC의 종교류(200)는 10개의 강 중에서 220-280 까지 7개를 기독교에 배정하여 기독교 중심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DDC의 종교류에서는 기독교 이외의 종교를 강조하고자 할 때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특정 종교에 우위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본표의 분류기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DDC

종교류의 내용을 가능한 한 적게 개정하는 측면에서, 본 표준전개표에서는 불교를 294.3에 그대로 두고 세부 전개사항은 동국대학교 분류표를 많이 참조하여 세분화 하였다.

<예>

- 294.3 불교
 - 294.31 불교철학, 불교교리
 - 294.32 제불(諸佛), 반야(菩薩), 불제자(佛弟子)
 - 294.33 경전(經典/佛典)
 - 294.34 법화(法話), 신앙록(信仰錄), 신앙생활(信仰生活)
 - 294.35 포교, 전도, 교회사업
 - 294.36 사원
 - 294.37 불교의식, 법회, 행사
 - 294.38 한국 불교
 - 294.39 제종파

② 동양발생 제종교

'299.5의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발생 제종교를 한국, 중국, 일본 순으로 재전개하고, 다른 나라는 DDC본표에 따랐다.

<예>

- 299.5 동양발생 제종교
 - .51 한국발생 제종교
 - .511 단군교(檀君教), 대종교(大倣教)
 - .512 천도교(天道教)
 - .5129 동학계 제분과
 - .513 증산교(甞山教)
 - .519 기타 종교

(4) 300 사회과학 Social sciences

사회과학 분야에서 한국 및 동양관계 재전개

가 적용될 수 있는 대부분의 영역은 Table 2의 지역구분표를 이용하여 세분할 수 있다. 하지만, 340 법률 부분은 영미법 체계와 우리나라 법체계가 상이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설문조사에서 보여주듯이 본표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행정학 분야에 대해서만, 대안을 제시하였다. 350 행정학에 대해서 DDC 21판은 각 국가의 행정(부)를 352-354 아래의 각 행정(부)에 09를 첨가하여 지역 구분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 352.230973, 한국 대통령 352.230951로 세분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국가별로 행정(부) 조직을 분류하려는 도서관은 Table 2 지역구분표를 이용하여 국가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KDC 4판의 350.2(한국의 중앙행정조직)를 기반으로 세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 대통령 351.511, 한국 법무부 351.51231, 미국 대통령 351.731; 미국 법무부 351.73231로 세분할 수 있다.

〈예〉

- 350 행정학 Public administration and military science
- 351 공공행정 Public administration
 - .5 아시아 각 국가의 중앙행정(부) 조직
 - .51 한국 행정(부) 조직
 - .511 대통령
 - .52 중국 행정(부) 조직
 - .53 일본 행정(부) 조직

(5) 400 언어 Language

DDC의 임의규정을 적용하면, 410을 한국어

로 분류하여야 하지만 이 경우에 중국어와 일본어는 495.1, 495.6으로 분산되어 이용에 불편이 야기된다. 또한 DDC를 재전개하고 있는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도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를 한곳에 모아놓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410을 포괄적인 개념의 아시아 언어로 분류하고, 그 아래에 아시아어를 세분하였다. 410 아시아 언어는, Table 6의 언어 구분에 따라 세부 전개하여,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순서로 분류하였다. 본표의 410은 DDC본표의 임의규정에 따라, 401~409로 재전개하고, 본표의 401~409의 표준구분은 400.1~400.9로 재전개하였다. 각국어의 세부구분은 기준은 DDC의 분류체계를 따르되, 세부사항은 KDC에 따랐다.

〈예〉

- 410 아시아 언어
- 411 한국어
- 412 중국어
- 413 일본어

(6) 800 문학 및 수사학 Literature & rhetoric

400 언어학과 마찬가지로, DDC의 임의규정을 적용하면, 810을 한국문학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 중국문학과 일본문학은 895.1, 895.6으로 각각 분산되어 이용에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DDC를 재전개하고 있는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도 한국문학, 중국문학, 일본문학을 한곳에 모아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810을 포괄적인 개념의 아시아 문학으로 분류하여, 언어학과 관련성을 유지하고, 그 아래에 아시아 각국의 문학으로 세분하였

다. 아시아 각국의 문학은 810 아시아 문학 아래에 Table 6의 언어 구분에 따라 세부 전개하였는데, 본표의 810은 DDC의 임의규정에 따라 820으로 재전개하였고 문학 형식의 세부구분은 KDC에 따라 세분하였다. 문학의 시대구분은 KDC에 준하여 세분하되, 최근의 자료에 적용할 수 있도록 DDC 본표의 구분을 참조하여 세분하였다. 예를 들면, 현대소설은 811.37 이지만 이를 시대적으로 세분하여, '811.371 1945-1949', '811.372 1950-1959', '811.373 1960-1979', '811.375 1980-1992', '811.377 1993-'로 역사의 시대구분에 준하여 세분하였다.

<예>

- 810 동양 문학
- 811 한국문학
- 812 중국문학
- 813 일본문학

(7) 900 지리 및 역사 Geography & history

① 910 지리 및 여행 Geography and travel

DDC의 한국관계 지리부분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법은 우리나라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하여, 재전개를 하여야 하지만, DDC에서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지리에 대한 개념을 지구상에 실제 존재하는 지역의 크기에 기준을 두고 구분하였다고 생각되지만,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자료가 대부분인 국내 도서관에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많으므로, 아시아 지리를 재전개할 필요가 있다.

915 아시아 지리 및 여행은 Table 2에 따라 지역 구분하여, 915.1을 한국지리 및 여행으로 하고, 915.2 중국, 915.3을 일본의 순서로 하였다. 그리고, 아라비아 지방의 지리 및 여행은 915.6의 중동지방과 합하여 분류하여, 한국, 중국, 일본의 순서를 유지하면서 우리 나라 지리에 관한 자료 분류에 편리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지역에 대한 세부구분은 Table 2를 사용하며, KDC에서 보여주고 있는 950 역사에 나타나는 지역구분과 개념적으로 구분하였다.

<예>

- 915 아시아 지리 및 여행
- 915.1 한국지리 및 여행
- 915.2 중국지리 및 여행
- 915.3 일본지리 및 여행

② 950 아시아 일반역사 General history of Asia Far East

역사부분은 지리부분과 마찬가지로, 시대구분에 대해서 DDC 본표는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DDC 본표에서는 포괄적인 시대구분으로 한국 역사에 대한 자료를 처리하는 데 미흡하여 세분화된 전개표가 절실한 분야이다. 950 아시아 일반역사에서 국가 구분은 Table 2 지역구분표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한국사, 중국사, 일본사 순서로 배열하였고 시대구분은 KDC에 근거하였다. 한국의 지역역사의 경우는 DDC 본표에서 보여주는 방법에 따라 세부적인 지역보다는 포괄적인 지역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에 따라 포괄적인 시대구분을 하여 지역의 역사부분과 우리 나라 전체적인 역사를 구분할 수 있는 체계로 재전개하였다.

〈예〉

- 951 한국
- 952 중국
- 953 일본

5. DDC 한국 및 동양관련 전개표의 운영지침 및 활용

KERIS는 전국 대학도서관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분류체계에 대한 관리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DDC 재전개표를 온라인으로 운영하여, 각 도서관에서 참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의 DDC 본표에 변환된 내용에 대한 변환표를 제공하여, 각 도서관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갱신을 위하여 KERIS는 각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전개표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각 도서관이 자체적인 재전개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현재 기존의 자체 DDC 관련 동양 전개표를 가지고 있어서 KERIS에서 제시하는 표준전개표를 사용할 수 없는 대학도서관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사용하는 keyword를 KERIS 표준전개표에서 자동변환시킬 수 있는 링크체계를 구축한다. DDC를 기본으로 삼고 있는 KDC의 발전을 위한 기본 연구센터로서 KERIS는 한국도서관협회의 분류 분과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학술정보를 비롯한 국내의 모든 도서관과 연관된 종합적인 정보센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국내 다수의 대학도서관에서 DDC 분류표를

사용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KERIS의 홈페이지에 있는 사서커뮤니티의 분류담당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DDC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미국 DDC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국내 DDC 관련업무를 관장하게 한다.

표준 전개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KERIS가 제공하는 종합목록에 DDC 분류기호 필드 외에 재전개된 필드를 첨가하여, DDC 분류기호, DDC 재전개 분류기호, DDC 로컬 분류기호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재전개표를 각 도서관에 배포함과 동시에 재전개된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재전개를 하고 있는 많은 도서관에서 자체적인 재전개표 개발보다는 다른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전개표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와 단행본으로 출판된 내용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배포활동과 교육은 재전개표 활용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

국가차원의 표준화된 전개표를 사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분류기호를 부여할 수 있으며, 도서관간의 협력체제 활성화와 자원의 공유를 통한 정보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KERIS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표준 전개표의 실현을 통하여, 자원공유의 확대와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다. 국가차원의 표준화된 전개표를 사용함으로써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적 협력이 가능하고, 이를 토대로 DDC 자체의 임의규정을 보다 융통성 있게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DDC 21판의 표준화된 동양전개표를 구성함으로써 현재 국내 다수의 도서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KDC 4판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에 기여

하며, 개정작업에 개선점을 반영시킬 수 있다. 현재 국내 일부 대학도서관과 다수의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KDC 4판은 기본적인 구분 배열과 계층구조를 포함한 상당 부분이 DDC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DDC의 동양관계 표준전개표에서 개발한 항목을 상당수 KDC 4판에서 응용할 수 있다.

6.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인 대학도서관간의 자원의 공유를 위한 DDC 표준재전개표 개발을 위해, DDC를 사용하는 도서관들 중 재전개표 사용 여부에 대한 조사와 재전개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재전개표를 만들어 사용하는 대부분의 도서관은 자체적으로 재전개표를 작성한 곳도 있지만, 다른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재전개표를 사용하기도 하고, 단행본으로 출판된 재전개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재전개표 내용을 분석한 결과 DDC 21판의 임의규정을 적용하여 재전개한 도서관은 거의 없고, KDC를 기준으로 하여 재전개하는 도서관이 많이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DDC 분류체계의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임의규정을 준수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만 KDC의 기준을 준수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은 KDC뿐만 아니라, 재전개를 하는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적용하는 지역구분에 대한 순서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DDC에 임의규정이 없지만, 보편성의 원리에 따라 이를 적용하였고 그 외의 대부분의 재전개는 임의규정에 충실하였다.

재전개표의 주요 내용은 Table 2, Table 5, Table 6, 000 총류, 100 철학에서 동양철학, 200 종교에서 불교와 동양발생 제종교, 300 사회과학에서 행정학, 400 언어학, 800 문학, 900 지리 및 역사로 한정하였다. 특히, Table 2의 지역구분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명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예를 들면, 북한의 지명의 경우, KDC 4판에는 1945년 이전의 지명이 사용되고 있어서, 현재 지리정보를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현재 북한의 지역구분과 지명을 첨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대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지식정보를 공유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며, KDC를 개정하는데도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국회도서관. 1959. 『두이십진분류동양관계세분전개표』. 서울: 국회도서관.
- 김승환. 1986. DDC 19판 사용에 따른 한국 및 동양관계 주제전개 연구. 『강남대 논문집』, 16: 599-621.
- 김정현, 문지현. 2001. 한국십진분류법 농학류의 분류기호 수정전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2(1): 223-248.
-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편. 1984. 『DDC동양관계 항목전개표』, 서울: 동국대학교 중앙

- 도서관.
- 오동근. 2001. 한국도서관을 위한 DDC의 재전개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4): 79-95.
- 오동근, 여지숙. 2000. 한국도서관을 위한 DDC 종교류 (200)의 재전개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1(2): 253-278.
- 이세원. 1994. 『DDC에 있어서 동양관계항목의 발전 및 고쳐쓰기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이재철. 1967. 한국에서 듀이십진분류법: 그의 역사와 전개 및 고쳐쓰기에 대한 고찰. 『국회도서관보』, 4(7): 5-14. 4(8): 18-28. 4(9): 24-29.
- 정연경. 2000. DDC 21과 KDC4의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4(1): 181-205.
- 최윤숙. 1974. 『우리나라 도서관의 DDC 동양 부문 전개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한경신. 1994. DDC에 있어서의 음악분야 분류상의 제문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6: 75-112.